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4월 21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8장 1절-10절

설교제목 :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란 뜻입니다. **미시오 데이**의 핵심개념은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일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1절 본문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난파되었다가 구조되었다는 사실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누가의 관점에 따르면, 자신들이 구조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행운이 아니라, 그 배후에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선교적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으로 14일의 예측할 수 없는 표류의 종착지는 **멜리데**란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말타** 혹은 **몰타**라고 불리는 섬인데, 그 섬의 전체 길이가 29km, 너비가 약 15km 정도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란 이름은 뜻은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은 바울 일행의 배가 출항한 그레데 섬에서 서쪽으로 800km에 위치해 있는데, 멜리데 섬은 로마에 이르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를 정확하게 멜리데 섬까지 휩쓸려 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더불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삶을 주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선교적 사건입니다. 2절에서, **비가 오고 날이 차매**란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멜리데 섬에 구출된 시점이 본격적으로 겨울 비가 오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난파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구출된 시점이 겨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항해가 불가능하여, **행28:11**에 의하면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난파 시점이 겨울이 아닌 항해가 용이한 다른 계절이었다면, 결코 3개월이란 시간을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멜리데 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역사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웁므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상황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공의**로 번역된 **디케**는 **공명정대한 처벌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믿는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바울이 비록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뱀에 물려 죽게 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독사에 물렸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몸이 붓거나 갑자기 오프드려 죽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에서 신

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5-6절) 여기서 **신이라 하더라**는 것은 원주민들이 바울을 즉각 신으로 경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신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멜리테 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 선교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적으로 신의 사람으로 여기진 바울을 멜리테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불러 사흘 동안 지극히 대접합니다.(7절) 보블리오가 호의를 베푼 이유는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투병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자신의 두 손을 얹어 그를 치유하였습니다.(8절) 결국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치유되었다는 사건은 보블리오 뿐만 아니라, 멜리테 섬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구원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멜리테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9-10절)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는 헬라어 원형 **데라퓨오**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닌 영육이 함께 회복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바울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행1:3)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행1:8) 성령의 임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공동체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공동체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도구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 2) 누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입니다. 구별별로 새생명축제를 위해 대신자를 작성해 보시고, 이번 새생명축제를 위한 119 운동의 실천사항을 다시 함께 점검해서 읽어 봅시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